

뜨거워진 득랑만 어패류 집단폐사 우려

표층수는 31도... 15일 지속땀 양식·바다 모두 위험

평균 수심 7m로 낮고 일조량 많아 수온상승 부추겨

‘득랑만’ 바다가 열 받았다. 연일 이어진 폭염과 일조량으로 청정해역인 득랑만 바닷물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국립 수산과학원 측이 장흥군 관산을 장항도앞 바다 표층수를 측정 한 결과 수온이 31도를 기록한 사실

이 알려졌다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득랑만 장흥 연안 키조개, 바지락, 새꼬막 양식장과 어류 육상 수조식 양식장 폐사현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득랑만 연안 어민들은 “이 정도 수온이 15일 이상 지속되면 가두리

양식과 육상수조식 양식 어류는 물론 바다에 서식하는 모든 어·패류가 집단 폐사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모든 어·패류가 산란하고 체력이 소진한 악한 환경과 환절기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고수온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생체기능을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수산과학원 측은 득랑만 평균 수심이 7m로 낮은데다 전형적인 내만 지형인 여건 때문에 폭염과 일조량이 많아 바다 수온 상승을 부추기고 있

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패류양식을 하는 김포(48·장흥군 안양면 수문리)씨는 “지난 1994년과 2004년에도 고수온으로 어·패류 집단 폐사 현상이 있었으나 올해처럼 장기적인 폭염과 일조량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며 “냉수대라도 빨리 밀려 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매년 중국 황해에서 발달해 우리나라 남서해안으로 밀려오는 ‘냉수대’ 현상은 현재 완도 청산도 앞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숨겨진 보물 찾아 카약 타고 출발~

지난 18~19일 고흥군 나로 우주해수욕장에서 열린 ‘2012 남도 보물섬 카약·캠핑대회’ 참가자들이 2인1조로 지도를 보고 숨겨둔 보물을 찾아가는 카약 오리엔티어링(orienteeing)을 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카약 동호회원 400여명이 참가했다.

<고흥군 제공>

담당서 韓·日 청소년 캠프

35년째 문화교류... 우의 돈독히

미래 주역인 한국과 일본 청소년들이 35년째 문화교류를 통해 우의를 다지고 있다.

담당군 수북면에 위치한 (재)국제 청소년 교육재단과 일본 오사카 어린이회 육성연합회는 매년 청소년들의 상호 방문을 통해 35년째 ‘한·일 교류 캠프’를 열고 있다.

‘한·일 교류캠프’는 1987년 1월 당시 재단 조완영 상임이사가 일본 만국박람회 기념협회에 참석차 오사카 부립 어린이육성연합회 사무국을 방문하면서부터 시작됐다.

1987년 8월 14~16일 양국 109명의 인원이 참가하면서 ‘제1회 한·일 학생친선교류’의 시발점이 됐다.

올해 역시 지난 16~19일 한·일 청소년들과 지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성암 국제 수련원에서 전체관측과 야

간 하이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재)국제 청소년교육재단은 1981년 설립 이후 총 58회의 팔목할만한 국제교류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애틀란타 한인센터와 자매결연, 프랑크 소르본느 대학 교류, 중국 북경 제4중학교 교류, 유네스코 국제 캠프, 샌프란시스코 한인여성예술인 작가협회 등의 협조를 바탕으로 6500여 명의 청소년들을 국제캠프에 참여시키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재단 이강열 이사장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고, 일본 청소년들은 한국 고유의 문화와 국가 발전상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재근기자 jgg@

‘신안 1004청소년오케스트라’ 캠프

아름다운 화음... 여름방학 추억쌓기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문상옥)은 방학기간을 이용해 지난 16~18일 2박3일 동안 ‘신안 1004청소년오케스트라’ 여름캠프를 실시했다.

세한대학교(구 대불대학교)에서 실시한 이번 여름캠프에는 흑산초등학교 학생을 비롯한 관내 초·중학생 45명이 참여해 바이올린 등 12개 파트로 나뉘 파트연습과 전체합주를 했다. 캠프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구암 컨벤션센터에서 리허설을 실시했다.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혼자서 연주할 때와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때의 느낌이 다르다”면서 “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기 위해 학교에서도 더 열심히 연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여름캠프는 지역연합 방과후

학교의 예산확보와 (사)미래를 여는 문화회(대표 이혁제)의 도움이 컸다.

‘신안 1004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다음달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디아 윈드오케스트라(지휘자 홍명진)와 합동 연주회도 가질 계획이다.

한편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은 지난해 3월 신안지역 문화·예술의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한국마사회(KRA)와 농어촌희망재단의 후원으로 (사)미래를 여는 문화회에서 신안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lee@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2012개 햇불로 김제 밝힌다

‘지평선축제’ 국내 최대·최고 기록 도전

10월10일~14일 벽골제 일원

우리나라 대표적인 농경문화 체험 축전인 김제 지평선 축제가 오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국내 최고(最古)의 수리시설인 벽골제 일원에서 개최된다.

지평선축제재단 위원회는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지평선 축제의 7개 분야 63개 행사 종합 프로그램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지평선축제는 농경문화의 시작이요 중심이었던 벽골제 중심거 발굴을 계기로 풍요를 약속하는 생명의 땅! 김제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글

로벌 명품축제’, ‘차별화된 체험축제’, ‘어울림 대동축제’, ‘소득을 창출하는 마케팅 축제’를 목표로 열린다.

우선 농경문화축제의 건설투자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과감히 배제하고, 김제만의 농경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별화를 꾀했다.

체류형 축제로 전환하기 위해 야간 프로그램과 경관 조성을 대폭 강화하고, 메인무대 이동 및 관광객 이동 동선에 따른 행사장 구성, 주차장과 편의시설 대폭 확대 등 관광객 위주로 공간을 구성한다.

특히 올해 ‘흑룡의 해’를 맞아 대형

이슈 메이킹 프로그램으로 ‘도전 2012! 지평선을 밝히는 벽골제 햇불 놀이’를 준비했다. 2012명의 참가자가 참여해 햇불 퍼레이드를 펼쳐 우리나라 최대·최고 기록에 도전하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이다.

이 밖에도 11개의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준비해 이전과 다른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건식 시장은 “올해 김제 지평선 축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목표로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합심하여 남은 기간 동안 분야별 세부계획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김제 모악산 순례길 조성

김제시는 전국 유일의 4대 종단과 다양한 종교의 집산지인 모악산 일원에 총 40km 길이의 사람과 종교, 자연이 어우러진 순례길을 조성한다.

김제시는 최근 김완주 도지사와 순례길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순례길 정비상황을 보고하고, 오는 11월 1~11일 예정인 세계 순례대회 개막식을 금산사에서 개최할 것을 건의했다.

시는 구간별 안내판과 방향표지판 설치, 가로수 식재를 통한 쾌적한 그늘 제공, 구간내 안전수칙 표지판, 평의자와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순례자의 불편을 없애고, 문화관광 해설사를 통한 체계적인 안내시스템 구축해 쾌적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스토리텔링이 있는 세계적인 관광코스로 개발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단 신

남원 인월면 자래마을에 표지석·유래비

430여년의 역사를 지닌 남원시 인월면 자래마을 주민과 향우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지난 18일 마을입구에 마을 표지석과 유래비를 건립했다.

자래마을은 임진왜란 발발 10년전인 1582년께 분성 배씨가 개척의 꿈을 안고 정착한 이후 김해

김씨와 밀양 박씨가 이주해 마을을 형성했다. 마을이름은 스스로 마을을 형성했다 해 자래(自來)마을로 불리워졌다.

최갑열 이장은 “자래마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역사적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이상용 초청, 내일 군산 새만금아카데미

군산 새만금아카데미 제7강과 23일 오후 3시 군산시청 새만금 아카데미홀(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는 ‘뽀빠이’ 이상용씨가 ‘즐거운 삶, 여유있는 인생’이란 주제로 삶을 풍성하고 풍부하게 할 ‘삶의 재테크 방법’을 강의

할 예정이다. 이씨는 MBC ‘유쾌한 청백전’으로 방송에 데뷔해 1989년부터 7년간 ‘우정의 무대’를 진행해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현재는 ‘늘푸른 인생’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김제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 착수

김제시는 지난 20일 시청상황실에서 관계 공무원이 이진식 시장 주재로 ‘김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시는 1단계로 김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난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추진한다. 2단계 용역을 통해 김제시 경관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김제시의 도시 발전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진식 시장은 “앞으로는 표준 디자인을 적용,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순창군 축산시설 15곳 현대화사업 추진

순창군이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동물복지형 축사건립, 개보수로 축사 주변 환경 개선과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57억6600

만원을 투입해 15개소의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28억1900만원을 들여 7개소의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사업량 중 47%에 달한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전나무 숲길을 따라~

여름휴가철을 맞아 가족단위 피서객들이 부안군 진서면에 위치한 내소사를 찾아 전나무 숲길을 걷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kwangju.co.kr